

2026년 7월 27일

Hana FX Daily Letter

환율 하락 견인하는 수급의 힘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위험회피 심리 완화와 매도 우위 수급 영향 속 하락

daily range 예상: 1,450~1,463원

■ 미-이란 간 외교적 대화 재개 기대감으로 국제유가가 하락, 이에 지정학적 위험회피 심리도 완화되었음. 또한, 수급 측면에서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회되고 있어 환율 하락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 다만, 트럼프의 EU 보복 관세 경고 등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부각된 점은 시장 경계감을 키우는 요인임. 여기에 저점 인식 속에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매수세가 유입될 점도 환율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금일 환율은 1,450원대 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전일 동향 : 24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5.7원 급락한 1,458.5원에 마감. 중동 확전 우려와 유가 불안 등 위험회피 분위기 반영하며 1,475.5원으로 상승 출발. 그러나 수출업체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해 1,46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등락하다 주간 거래를 마침. 이어진 야간장에서도 달러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도 하락하자 1,450원대 후반까지 낙폭 키워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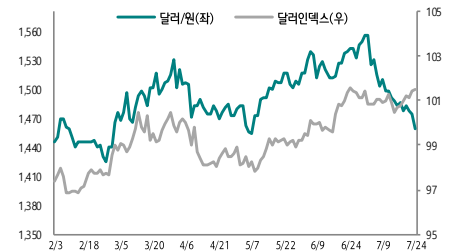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중재국들의 미-이란 협상 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강경 대응 가능성과 트럼프의 EU 관세 부과 위협 등이 겹치며 달러는 강세 흐름을 이어감
- (유로-달러) ECB 관계자가 추가 긴축이 시급하지는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대비시한 태도를 보이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미 재무부의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 표명과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엔화 약세가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163엔대 후반에서 보합세를 기록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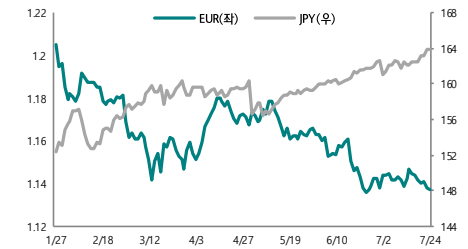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에서는 수급 여건과 주요국 통화정책회의 등을 주목할 것으로 예상. 최근 환율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동력은 수급 요인으로 판단됨.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달러 매도 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는 가운데,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둔 수출업체의 네고물량까지 더해질 경우 하방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반면 대외 이벤트들은 환율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큼. 주 중반 예정된 FOMC 회의에서는 최근 둔화된 물가를 반영해 금리 동결이 유력하나,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계하며 매파적 기조를 견지할 것으로 예상. 주 후반 개최될 BOJ 통화정책회의 역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우세함. 엔화 약세 방어를 위한 매파적 발언이 나오더라도, 향후 긴축 속도에 대한 시그널이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엔저 심리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른 주요 통화 변동성이 원화에 미칠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미-이란 재협상 움직임은 위험회피 심리를 제한하는 요인이나, 갈등 재격화 가능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종합하면 금주에도 대외 리스크로 인한 환율 상승 시도가 예상되나, 수급이 이를 제한하며 무거운 흐름을 이어갈 전망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475.5	1,476.3	1,458.5	1,459.1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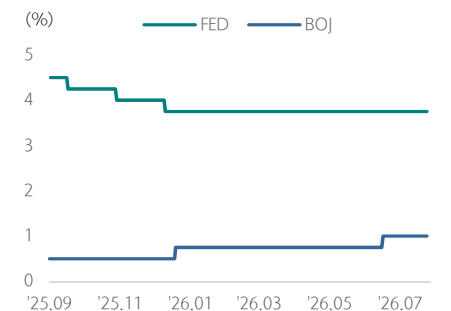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368	163.85	6.7717
전일대비	-0.0008	0.00	-0.0062
재정환율	1,658.61	890.45	215.4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7:00	독일 7월 IFO 기업환경지수	86.0	85.6
21:30	미국 6월 내구재주문(MoM)	1.8%	-4.5%

미국, 일본 기준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